

# 복막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복막염의 경험적 초치료 항생제 선택에서 ISPD 가이드라인의 치료적 유용성 분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오국환 · 오지은 · 이영기 · 노정우 · 김성균 · 김형직 · 서장원 · 윤종우 · 구자룡 · 안규리\*

**목적 :** 복막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복막염의 치료에 관한 ISPD 가이드라인 (2000)에서는 원인균의 동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경험적으로 선택하는 항균제로서 cefazolin 및 ceftazidime 또는 aminoglycoside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메치실린 저항성 균주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지역사회와 병원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국가에서 ISPD 가이드라인을 따른 초치료 약제 선택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복막염에서 ISPD 가이드라인을 따른 경험적 초치료 항균제 선택의 치료적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방법 :** 3차 의료기관인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막투석을 시행받고 있는 환자에서 2000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4년간 발생한 복막염에서 원인 균주의 미생물학적 특성과 ISPD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치료를 시행했을 때의 임상적 경과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이 기간 동안에 복막투석을 시행받은 환자는 모두 349명이었고, 175예의 복막염이 발생하여, 복막염의 발생률은 40.9 환자-년 당 1회였다. 그 중 137예에서 원인균이 동정되었으며, 동정된 균주 가운데 71예 (54.2%)가 그람 양성균이었고, 54예 (39.4%)가 그람 음성균이었다. 42예의 포도상구균 감염례에서 24예 (57.1%)는 메치실린 감수성 균주 (MS 그룹)였으나, 18예 (42.9%)는 메치실린 내성 균주 (MR 그룹)였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메치실린 내성에 무관하게 초치료 약제로 cefazolin과 ceftazidime (또는 tobramycin)이 투여되었으나, MS 그룹의 3예 (12.5%)와 MR 그룹의 5예 (27.7%)에서는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고려하여 초치료로 vancomycin을 투여하였다 ( $p=NS$ ). MS 그룹의 5예 (20.8%)와 MR 그룹의 8예 (44.4%)에서는 치료 도중 항생제를 변경하였다 ( $p<0.05$ ) 도관 제거율과 완치율에 있어서 MS 그룹과 MR 그룹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MS그룹의 21예 (87.5%)와 MR 그룹의 15예 (83.3%)에서 복막염이 성공적으로 치료되어 복막투석을 지속할 수 있었다 ( $p=NS$ ). 한편, 54예의 그람 음성 균주 가운데 3예 (5.6%)만이 ceftazidime 내성 균주였다.

**결론 :** 원인 균주의 항생제 내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초치료 약제로서 cefazolin과 ceftazidime (또는 aminoglycoside) 투여를 근간으로 하는 ISPD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복막투석 관련 복막염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